

##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



김수진목사님 가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 안식일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가운데 저 혼자만이 교회에 참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외 와드에는 많은 가족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서 부모님에게 저의 교회에 대해 알려 드리고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드리는 것이 저의 할일이라 생각하면서도 그분들을 대하면 용기가 없어서인지 두려움이 앞서서인지 그러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는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축복문에는

“그대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훌륭한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 이 지상에 올 수 있었느니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참으로 저에게는 건에 느끼지 못했던 회일이 찾아 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쁜 사실은 저외 부모님이 전세에서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영이라는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이 지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훌륭한 부모님을 통해 이 지상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커다란 책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복음을 부모님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힘이 저에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 “부모님이 당신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것은 집에서 갖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여 드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자연히 학교 생활에도 충실할 수 있었고 학교 친구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 왔습니다. 복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사랑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던 부모님들도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 하셨습니다. 금식주마다 방문하시는 가정 복음 교사가 많은 열의를 보시고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3월에 가정 복음 교사가 전해 준 감동담 메시지의 내용을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네 허리띠를 풀어 매며 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약한 날에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일을 수행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풀어 매며 가슴에는 의의의 가슴판을 띠며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천사가 말한 평화로운 복음의 준비로 신을 신고 일어서라. 왼손에는 악한자의 불화살을 날릴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가지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의 검을 들고 입에는 너희에게 계시할 말씀을 가지라. 또 너희가 내가 간구한 것은 무엇이냐 주는 대로 다 만족하라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이끌려 올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되리라.” (교성 27: 15-18)

저는 지금 저외 가족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신이 가정 복음 교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기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보러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 하루에 47명의 구도자를 찾음 (상계 2와드)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주제로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2와드 회원들은 4월 5일 하루 동안 47명의 구도자를 찾았다.

복음 선교사 4명을 포함하여 장로 정원회 회원 11명 상호부조회 회원 9명 청소년 7명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 3명까지 모두 34명은 복음 선교사의 일일 생활표 대로 활동하여 안내문과 소책자를 가지고 오전에는 가두 전도, 오후에는 가가호호 활동을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선교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 회원 상호간에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



## 대구 스테이크 대회



말씀하는 브래드포드 영모(왼쪽)와 한 원장 영모

대구 스테이크는 1984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5월 12~13일 양일간에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 와드에서 개최하였다.

“보라 완악한 자들은 지워져 의로운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지 못하리니” 엘마서 5장 57절을 주제로 가진 이번 대회에서는 감리자인 브래드포드 장로는 특신 성인들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 원걸 스테이크 부장은, 세상의 완악한 무리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대회를 통하여 대제사에 서 도교 형제(수성 와드), 장로에는 정 인환 형제(대명 와드), 진 성희 형제(수성 와드), 김 경진 형제(수성 와드), 허 경진 형제(경주 지부)가 성임되었으며 고등 평의원으로는 박 재덕 형제와 서 도교 형제가 지지되었고, 스테이크 청남 회장에 박 종진 형제, 그의 제1보좌에 김 현수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참석 인원 364명 \*



대구 스테이크 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 합동 노년의 모임 (서울 지역)



5월 2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지역 센터에서는 이 호남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서울 지역 각 스테이크의 많은 회원들이 브리감 영 대학교 불물 댄스단과 함께 특별 노년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 말일성도 합창단이 찬송가 86장과 220장, 53장, 107장 그리고 36장을 불렀으며 그동안 지휘를 맡았던 최 현수 형제가 찬송 42장과 이탈리아 가곡인 "금지된 노래"를 불렀다.

최 현수 형제는 그의 부인인 양 경신 자매와 함께 이탈리아의 미라노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떠나기 전에 간증을 전해주었다.

특히 양 경신 자매는 교회 안에서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으며 음악을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었음을 커다란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2부 순서에서는 브리감 영 대학의 남녀 대학생 각 한 명이 간증을 하였으며 찬송가 53장과 가곡을 복4 중창으로 불러 주었다.

이번 내한한 브리감 영 대학생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차례의 공연을 통

하여 한국 사람과 친근해졌다고 말하면서 한국 성도들의 후의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42기 수료

훈련 기간: 1984. 5. 21~25.

원 경호 장로-인천, 주안 와드  
이 상곤 장로-서울 서, 독산 지부  
박 주현 장로-광주, 충장 와드  
백 용실 장로-광주, 여수 와드  
김 운숙 자매-부산 서, 구포 지부  
최 미연 자매-인천, 부평 와드

## 원주 지부 예배당 기공식

지난 5월 13일, 원주지부(서울선교부)에서는 서울 선교부장단 제1보좌이신 정연우 부장, 건축담당이신 뉴먼 형제, 그리고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형제자매들은 '감독실'이 위치할 자리에 첫 삽을 뜨면서, 아름다운 원주에 시온이 건설되고, 이곳에서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며, 특히 새 건물 주위의 주민들이 회복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기원했다.

연건평 120평인 이 예배당은 오는 10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



## 안양 와드 헌당식



6월 16일 오후 5시부터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안양 와드에서는 이 호남 장로의 감리로 안양 와드 예배당 헌당식을 가졌다.

김 창선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과 최 동헌 부장 그리고 허 체 인천 스테이크 부장 등 많은 신권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된 헌당식에서 이 호남 장로가 헌납 기도를 하였다.

이 건물은 1983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10일에 완공되었으며 준공된지 9개월 만에 헌당식을 갖게 되었다.

안양 와드는 이 지역 기성 교회 신도들의 주목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김 회영 감독은 그동안 애써온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숨은 기도와 헌신의 응답이라고 말씀했다.

대지 : 300평, 건평 : 148평. \*

## 브리감 영 대학교 사교 무용단 한국 공연

브리감 영 대학교 Ballroom Dancing Group(사교 무용단) 한국 공연이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울과 청주에서 각각 열렸다.

특히 5월 25일에는 오후 2시부터 MBC 여의도 공개홀에서 전국 방영을 위한 녹화가 있었고 오후 7시부터는 서울 정동 MBC 문화 체육관에서 회원과 구도자를 위한 공연을 하였다.

2,700여 명의 관객을 사로잡은 이날 공연에는 미국의 전통적인 사교춤을 비롯하여 코메디, 난쟁이 춤, 그리고 여러나라의 특색있는 춤을 보여주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브리감 영 대학교 학생들은 자유중국, 태국, 그리고 중공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한국에 왔으며 한국 공연이 끝나는데로 일본을 거쳐 귀국 길에 올랐다.

한편 청주에서 2회에 걸쳐 가진 공연은 대대적인 찬사와 호평을 받았으며 충북 대학교 총장과 청주 시장이 만찬을 베풀었고 청주 문화 방송의 이 대원 사장은 내년에도 꼭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월 25일 녹화한 공연 모습은 이튿날 아침에 KBS와 MBC에서 각각 전국에 방영하였다. \*



## 박 하천 광주 스테이크 부장 특선(서예 부문)

박 하천 스테이크 부장



김 옥주 자매

박 숙인 자매



박 하천 광주 스테이크 부장은 제4회 전국 서도민전(書道民展)에서 특선(서예 부문)에 입상하였다.

부산일보와 한국 서도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427점이 출품되어 216점이 입선했는데 그중에서 특선은 18명이었다.

1984년 6월 8일자 부산일보에 발표된 입상자들은 6월 18일 오후 2시, 광주 시민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박부장은 5월 13일 전라남도 미술대전에도 출품하여 역시 서예부문에서 특선되었고 광주 스테이크 총장wards의 박 숙인 자매는 서예부문에서 입선하였으며 여수와드의 김 옥주 자매는 한국화 부문에서 「生」이라는 제목으로 입선하였다. (광주일보, 6월 4일, 7면 참조)

한편 호남 제29회 예술제에서는 박 형태 형제가 독창 부문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광주 스테이크는 6월 한달 동안 무려 4명이나 큰 상을 받는 기쁨을 안게 되었으며 올해 입선한 김 옥주 자매와 박 숙인 자매는 다음 해에 꼭 특선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

## 성구 암송 대회 (영동 스테이크 초등 협회)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5월 26일 오후 3시부터 영동 와드에서 초등 협회 성구 암송 대회를 가졌다.

불꽃반, 꾀꼬리반, 용기반, 정의반, 햇님반 그리고 별님반에서 모두 19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여 경쟁을 벌였다.

영동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인 정 윤 형제가 감리하는 가운데 연 명애 자매의 재치있는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최우수상은 성남 중앙 지부의 최 유경 자매가 차지하였으며 우수상은 손 주연 자매(영동 와드)와 신 명희, 이 정은 자매(성남 중앙 지부)가 받았다. \*

## 농촌 일손 돕기 참여 (광주, 목포 와드)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목포 와드에서는 농촌 일손 돕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사 정원회 소속의 형제 18명과 독신 성인 다수가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정 삼중씨의 논 2,200여 평에 모심기를 마쳤다.

이번 행사 중에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교회를 소개하였으며 오후 8시 30분에 귀가하였다. \*

모내기때 참여한 목포 와드 회원들



## 아론 신권 회복 155주년 기념 말씀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

아론 신권 회복 155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5월 19일 도봉 와드에서 청남, 청년회 주최로 말씀 대회를 가졌다.

와드, 지부에서 선발된 8명의 연사들은 와드, 지부를 대표하여 열심히 발표 하였다.

이번 말씀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상계1 와드의 김 수진 자매가 수상하였는데 제목은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였으며 장려상은 장 영순 형제(12세)가 받았는데 그는 "복음의 실천"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날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은 심사평을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복음대로 생활하여 보다 훌륭하게 성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

## 권 영준 형제 유타 벨리 청소년 교향 악단에서 활약



유타주 덕슨 중학교에서 악장을 지낸 권 영준 형제(권 찬태 형제의 장남)가 유타 벨리 청소년 교향악단의 바이얼린 연주자로서 맹활약 중이다. 권 형제는 브리감영 대학에서 바이얼린 연주의 권위자인 퍼시 칼드 교수의 사사를 받고 있으며 7월 6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영국의 수도인 런던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다니며 연주 여행을 할 계획이다. \*

## 서울 스테이크 대회



1984년도 전반기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5월 5~6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이 새로이 구성되었는데 최 육환 스테이크 부장의 제1보좌로 김 용일 형제가 부름을 받았으며 제2보좌는 최 무선 형제가 지지되었다.

새로운 고등평의원으로는 박 기병 형제, 김 한치 형제, 한 상익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상호부조회 회장에서 서 인석 자매, 초등학교 회장에 김 정숙 자매(전 상호부조회 회장) 그리고 윤 태성 형제가 주일학교 회장으로 각각 지지되었다.

한편 대체사에는 도 명술 형제(청운 와드), 윤 태성 형제(청운 와드)가 지지되었으며 장로에는 성 태현 형제, 한 승현 형제, 김 정란 형제(농아 지부)가 성임되었다. 약 500여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말씀한 연사들은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5월 3일 새벽 2시 30분쯤에 모친상을 당한 최 육환 스테이크 부장은 슬픔도 있고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하였다. \*

## 지역 회장단 임명

상주 회장단은 교회의 종무뿐만 아니라,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교회 교육 기구, 관리 감독단 국제 사무실, 출판 업무, 시설, 번역, 공보 및 그 지역 내의 기타 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모든 지역 회장단은 각 지역 내에서의 교회의 건설과 교회 업무의 관할에 대하여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은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하게 된다. 그 중에는 최근에 대관장단이 발표한 교회의 행정 지역상의 재편성의 일환으로 유럽, 남미, 호주 지역에 상주하게 된다.

회장과 두 보좌로 구성되는 지역 회장단은 현재의 집행 관리자와 대체된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에 7개 지역, 유럽,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6개 지역이 있게 되어 모두 13개의 지역이 있게 된다.

초기의 시험 기간 중에, 새로 조직되는 회장단들은 유럽, 남미 남부, 태평양 지역에 상주하게 된다.

영국 제도와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유럽 지역은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중심이 되며, 조셉 퍼 워스런 장로가 회장이 되고,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와 리셀 시 테일러 장로가 보좌가 된다.

남미 남부 지역은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를 포함한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상주할 지역 회장단은 에이 디어더어 터를 장로가 회장이 되고, 제이콥 디오거 장로와 스펜서 더블류 오스본 장로가 보좌가 된다.

로버트 엘 심슨 장로는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제도와 하와이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며, 그의 보좌는 드비어 해리스 장로와 필립 티 스타크 장로이다. 지역 본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 두게 된다.

세 명의 회장단과 그들의 가족은 9월부터 그들의 지역에서 상주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 회장단은 교회의 종무뿐만 아니라,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교회 교육 기구, 관리 감독단 국제 사무실, 출판 업무, 시설, 번역, 공보 및 그 지역내의 기타 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모든 지역 회장단은 각 지역내에서의 교회의 건설과 교회 업무의 관할에 대하여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북미 이외의 다른 지역은 다음과 같다: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및 니카라과가, 진 알록 장로가 회장이 되고, 테드 이 브르어른 장로와 안헬 아르레이아 장로가 보좌가 된다.

남미 북부-브라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찰스 디데